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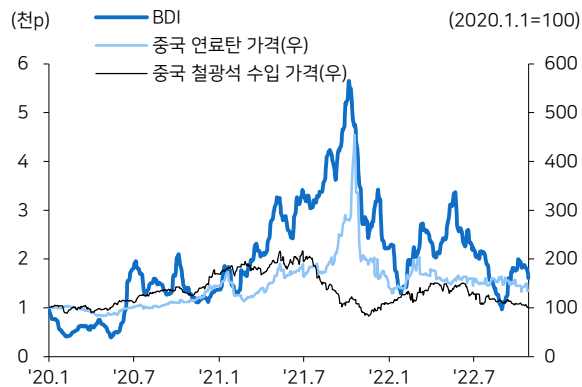
2022. 10. 31 (월)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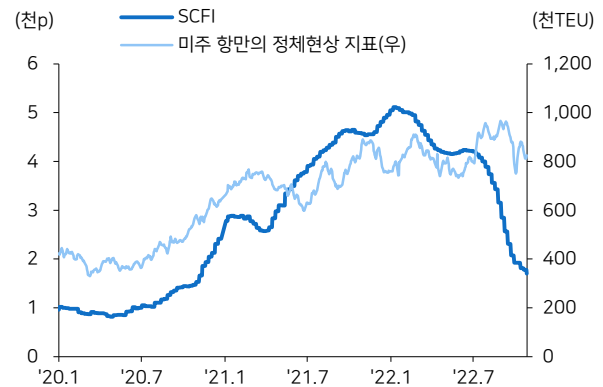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534.0p(-78.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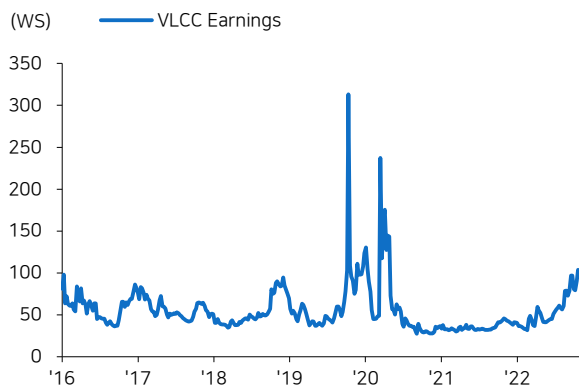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697.7p(-8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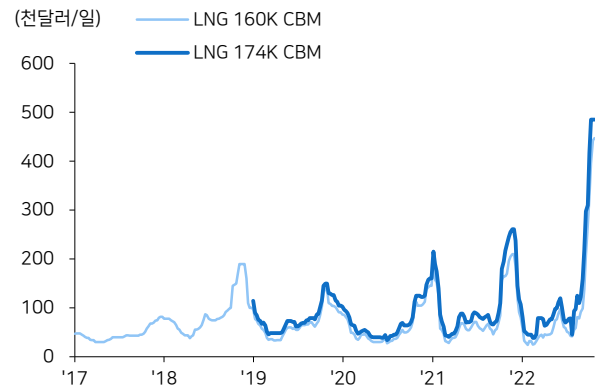


VLCC Spo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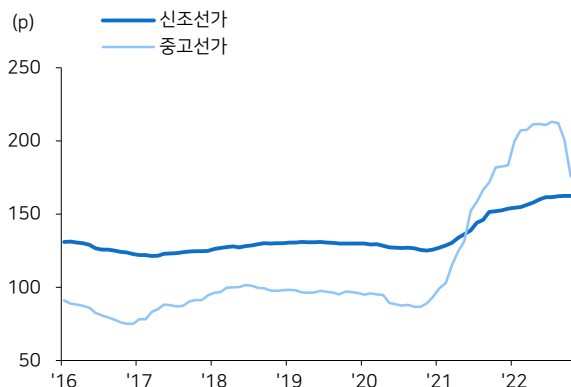
95.6p(-8.2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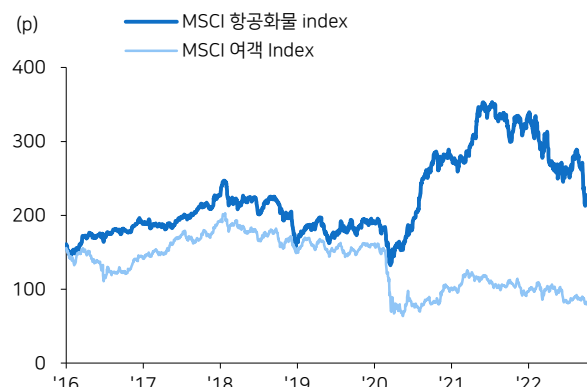
LNG Spot 운임

447.5p(+5.0p WoW)
485.0p(+0.0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2.0p(+0.1p WoW)
175.0p(+0.3p WoW)

항공시장 지표

230.4p(+0.3p DoD)
89.8p(+0.2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Russia indefinitely suspends the Black Sea grain corridor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흑해함대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흑해 곡물 수출 협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보도됨. 이 협정은 곡물 수출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었음. 협정 체결 이후 약 800만톤의 곡물이 수출된 바 있음. 협정 중단 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은 다시 막히게 됨. (Tradewinds)

More than 200 ships set to drop from Russia trades once EU embargo kicks in

러시아 탱커 선대를 현대화하고 선대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선 1,660만달러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도됨. 탱커 선대 현대화는 러시아 산 석유 및 가스 수출 중심을 인도와 중국으로 바꾸는 데 필수적임. 오는 12월 유럽연합의 수입제재가 시작되면 러시아는 Suezmax 35척, Aframax 70척 등 105척 이상의 탱커가 더 필요함.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탱커는 Ice-class 탱커로 알려짐. 미국과 EU의 제재로 러시아는 BRICS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도됨. (Tradewinds)

\$3bn 'endorsement': China's Cosco takes leap into methanol fuelling with order for giant container ships

중국 선사 COSCO는 중국 2개 조선소에 메탄올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발주하며 메탄올 연료에 올인하고 있다고 보도됨. 24,000TEU급 이중연료 선박의 선가는 총 29.9억달러로 척당 2.4억달러에 중국 조선소에 발주됨. 2026년 3분기~2028년 3분기 사이 인도될 예정임. (Tradewinds)

Suezmax rates jumped this week, but how long will the upturn continue?

Suezmax 탱커 성약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운임상승이 있었지만 곧 하락할 것으로 보도됨. Suezmax 용선료는 지난 9일간 14,000달러 상승해 금요일(28일) 78,200달러/일을 기록한 바 있음. 아프리카 서부 운임이 상승했는데, 12월 5일 러시아산 원유 제재가 시작되면 더 많은 선박이 몰릴 것으로 언급됨. 브로커들은 다음주 운임 하락 압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함. (Tradewinds)

현대중공업그룹, 연내 팔란티어와 JV 설립키로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휘발유와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의 신규 판매를 금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됨.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가스 배출을 55% 줄이기 위한 'Fit for 55'패키지를 확정하며 합의됨. 승용차는 EU 도로 운송으로 인한 CO2 배출량의 61%를 차지하는 주 오염원이었다고 알려짐. (뉴시스)

현대중공업그룹, 연내 팔란티어와 JV 설립키로

현대중공업그룹이 2022년내 미국 빅데이터 기업인 팔란티어와 합작회사를 설립한다고 보도됨.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9월 팔란티어의 기업용 빅데이터 플랫폼 '파운드리(Foundry)'를 조선해양 부문 전 계열사에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 현재 추진 중인 자율 운영 조선소 기반 구축에 활용하기로 한 바 있음. (서울신문)